로컬뉴스

익산 도시재생 주민공동협의체 회원 50명 참석 첫 정기회의

익산시 도시재생 주민공동협의체는 15일 오후 중앙동주민센터에서 도시재생 추진단 직원들과 주민공동협의체 회원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정기회의를 가졌다.

주민공동협의체는 원도심 지역(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일원)의 주민들 50여명이 모여 구성된 주민 참여 기구이며, 도시공간분과, 도시재생분과, 도시공동체분과, 문화공동체분과 총 4개의 분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공동협의체 운영을 규정하고 체계적 활동 준비를 위해 분과 대표와 분과위원 임원진을 결정했다. 앞으로 협의체는 도시재생추진단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도시재생 아이디어 발굴과 주민 자발적인 원도심 지역자산 조사·분석에 의한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익산=장양원기자

코레일 전북본부, 명강사 초청 특강

코레일 전북본부는 지난 14일 파업 이후 이완된 조직 분위기를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직원 및 직원가족이 관심 있는 분야인 '계획을 세워 공부 하는 법'이란 주제로 명강사 초청 특강을 남성여고 대강당에서 시행했다.

이번 특강은 동아일보 선정 「10년 뒤 한국을 빛낼 100인」, 매일경제신문 선정 「한국의 경영대가 25인」에 선정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최종학 교수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졌다.

장영철 전북본부장은 앞으로도 직원이 빠른 시간 안에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활동 및 조직안정화 프로그램을 지속 시행하여 화합과 상생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 세아베스틸 3600만원 기탁

(주)세아베스틸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따뜻한 나눔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15일 군산시에 성금 36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와 긴급생계비·의료비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김태완 노조위원장은 "세아베스틸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올해 사회공헌 나눔 협약을 통해 2억4000만원을 후원할 수 있게 되어 회사와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대표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실천하는 세아가 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신동진벼 · 새누리벼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

군산시가 신동진벼와 새누리벼를 2017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으로 선정했다.

시는 지난 13일 농업인 대표, 농협관계자, 농산물품질관리원,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회는 사전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자 공급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농가에서 종자를 확보하는데 비교적 용이하고 밥맛이 양호한 '신동진벼'와 '새누리벼'를 매입품종으로 결정했다.

김충렬 군산시 농산물유통과장은 "농민의 선호도가 높고 지역특성상 적합한 품종이 선정됐다"며 "향후 매입품종을 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2017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호원대 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

중소기업 아프리카 수출지원 활발

우간다 국제무역전시회 · 베이비 엑스포 등 참가 수출시장 개척 활동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GTEP)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도내 중소기업의 아프리카 수출지원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호원대 GTEP사업단은 지난 10월 아프리카 우간다 캄팔라에서 열린 '우간다 국제무역전시회', '에티오피아 건축자재박람회'와 중국 '베이징 문화서비스박람회' 참가에 이어, 12월초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베이비 엑스포(Mama Magic)'에 도내 기업 제품을 출품하여 활발한 수출시장 개척 활동을 벌여왔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수출시장 개척 지역이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 등 동아프리카 지역 중심에서 남아공, 짐바브웨, 보츠와나 등 남부 아프리카 국가들로 확장되어 더욱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번 남아공 베이비 엑스포에서는 전주시에 소재한 ㈜키키스토리(대표이사 전보라)의 유아용 내의 및 잠옷을 출품했으며, 현장에서 유럽연합과 남아공 지역에 대규모 유통망을 확보한 Baby'n More 등 유명 바이어와 판매대리점 계약협상을 성사시켰다.

호원대 GTEP사업단장 박문서 교수는 "아프리카 지역은 앞서 진출한 중국산 제품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인 것은 사실이지만, 제품이미지와 품질 경쟁력에서 앞선 한국산 제품의 진출 기회는 아직도 상당하다"며 "국제박람회 참가 등 기업 자체의 시장진출 노력과 함께 대학과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협력과 지원이 뒷받침될 경우 상당한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해경

올 해 높은 구조율 · 신속한 현장대응 성과올려

골든타임 대응 비율 4.8% · 발생사고 대비 구조 1% 상승

빠르고 정확한 판단 그리고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인명 구조율을 높인 군산해경이 바다 위 든든한 수호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5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올 한해 해양사고 골든타임 대응 비율이 지난해 80.6%에서 4.8% 상승한 85.4%를 보였으며, 발생사고(145건 797명) 대비 구조(141척 791명) 비율은 지난해 96%에서 1% 상승한 9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해안가에서 발생하는 추락과 고립자 등의 연안사고의 경우 지난해 4명에서 올해에는 2명으로 절반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험지역 출입통제장소 지정과 영업용 선박에 대한 집중적 안전관리를 통해 바다에서의 인명사고를 막는데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이밖에 지난해 26,000ℓ의 해양오염원이 바다로 유출됐으나 올해에는 70%가 줄어든 3,000ℓ만이 발생했으며, 섬지역과 선박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78명을 육지로 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경 장인식 서장은 "아직도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 등 해결해야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다"며 "2017년에는 해양사고의 위험성을 인식시키는 정책 발굴과 현장에서의 역할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지방언론사와 작가로써 활동 중인 채명룡 기자

'나는 오늘 개복동을 걷는다' 출간

고은 시인 청년기 고뇌 · 아픔 오늘의 시각으로 해석

지방언론사와 작가로써 활동하고 있는 군산의 채명룡 기자가 군산지역 골목길을 소재로 하는 기행 수필집 '나는 오늘, 개복동을 걷는다'(ICM출판사)를 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나는 오늘, 개복동을 걷는다'에는 군산이 고향인 대문호 고은 시인의 성장기와 청년기의 발자취를 찾아내 오늘의 시각으로 재조명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이 책 내용만으로도 세계적인 대문호 고은 시인을 상품으로 관광 군산을 널리 알리는 스토리텔링의 자료로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년 고은, 그가 걸었던 골목길'이라는 부제목처럼 이 책 속에 고은 시인과 관련된 군산의 골목 이야기가 잔잔하게 펼쳐졌으며, 그의 일화와 군산의 사람들이 11개 주제별로 수록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한때 군산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원도심으로 전락한 개복동과 명산동, 월명동과 신흥동 골목에 깃들어 있는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고은 시인의 이야기와 함께 풀어냈다.

채명룡 기자는 이 책을 통해 "고은 시인의 뜸한 군산 귀향과 인색한 군산 이야기 중에 그가 선생님이 되었던 과정, 그리고 '고은'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추적하고 이를 글로 남긴 과정을 담았다"고 말했다.

작가이자 시인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고증이나 사실 관계에 집착하기 보다는 고은 시인이 겪었던 청년기 때의 고뇌와 시대적인 아픔을 군산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채 기자는 "이번 책에서는 고은 시인이 자라고, 절망하고, 방랑의 길로 들어선 땅인 고향 미룡 용둔리 얘기는 하지 않았다"면서 "그가 겪었던 처절했던 청소년기를 이해한다면 그의 절망은 더 깊은 인간미로 다가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군산의 문화적 예술적 자산인 고은 시인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일이 무의미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가까운 시일 안에 완성되지 않은 이 책을 더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는 오늘, 개복동을 걷는다' 책 출판기념회는 오는 23일 오후 4시30분부터 군산시 월명동 근대역사의 거리에 있는 근대교육관(고우당 옆)에서 열린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기업 · 단체들 이웃돕기 기탁 이어져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기업과 단체, 시민들이 지속적인 사랑을 보내고 있다.

전북은행 비즈니스클럽은 지난 15일 익산시장실에서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에게 써달라며 겨울 난방비로 600만원을 익산시에 기탁했다.

곽의상 회장은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고자 이번 후원을 하게 됐다. 많은 등유는 아니지만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역사회에서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올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

익산 영등1동 소재 보광교회(담임목사 전춘식)는 같은 날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400만원 상당의 선물꾸러미 40상자를 영등1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보광교회는 10월 27일 사랑나눔 바자회의 이익금으로 샴푸, 칫솔 등 생필품과 햅찹쌀, 고추장, 김과 같은 먹거리 등으로 꾸러미를 만들었다. 특히 고추장은 시중에서 파는 제품이 아닌 봉사자들이 사랑의 정성을 가득 담아 직접 담가 기탁의 의미를 더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장애인연합회

장애인활동지원 최우수기관 선정

(사)군산시장애인연합회(회장 장종진)가 지난 14일 열린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 기관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단체 등 300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평가를 실시했으며 기관운영 실태, 인력의 전문성 및 시설환경, 서비스 제공과정, 기관 운영개선 등 총 4개 영역으로 평가됐다.

군산시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 및 특성을 파악하고 활동보조인의 급여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활동보조인 교육 및 관리를 꾸준히 진행하는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전국 상위 10%에 해당하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 또한 우수기관으로 평가 받았다.

장종진 장애인연합회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및 활동보조인 교육강화 등 보다 나은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 지방재정 확충 기여

익산시는 올 연 초부터 일반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존부적합 토지는 매각하고, 무단점유지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해 지방재정확충에 보탬을 줬다.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시유재산 951필지 32만6,456㎡ 및 도유재산 40필지 7,221㎡에 대하여 목적외 사용?전대 등은 물론 활용가치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중점 조사했다.

그 결과 변상금 17건 2,200만원, 대부계약 26건 1,800만원, 매각 39필지 17억7,500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두어 익산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채청산에 일익을 담당했다. 지적공부와 불일치한 재산에 대하여 지목변경 523필지, 합병 667필지를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에 투입된 재원을 면밀히 분석?세무서에 환급 요청하여 2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등 시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박귀자 회계과장은 "보존부적합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부채상환 등 부족한 시 재정을 충당 할 계획"이라며 "변상금 부과 등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세외수입은 물론 공신력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원광대 작업치료학과, 치매 파트너 우수상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작업치료학과가 '2016 전라북도 치매 관리사업 발전대회'에서 대학생 캠페인 부문 '치매 파트너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북도광역치매센터 주관으로 지난 14일 열린 치매 관리사업 발전대회에서 한 해 동안 전라북도 내에서 치매 관련 홍보 및 봉사활동을 시행한 기관과 대학 중 우수한 성과를 이룬 단체를 선정해 시상식이 이루어졌다.

원광대 작업치료학과는 학과 봉사동아리인 '해피니스'를 중심으로 2014년부터 매년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봉사활동과 인식개선 홍보활동을 실시해 왔다.

특히 올해는 일반인을 비롯한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매 돌봄 문화 확산과 치매 인식개선을 위해 치매 예방 및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수칙안내, 온라인 치매검사 소개 등 다양한 치매 관련 정보들을 홍보하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대학생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익산=장양원기자